

Eugene Daily Snapshot

불편한 점심시간의 귀환

유진투자증권

2026.08.19

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)368-6136_lee.jy@eugenefn.com

주식 (26.8.18)

(단위: pt, %)

		증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6,869.83	-1.5	9.1	0.7	63.0
	KOSDAQ	834.20	-3.5	-2.4	5.3	-9.9
미국	S&P500	7,691.76	-0.7	-0.5	3.1	12.4
	NASDAQ	26,289.71	-1.3	-0.6	3.0	13.1
	필라델피아 반도체	11,992.46	-5.0	-0.9	2.7	69.3
유럽	EUROSTOXX50	6,468.17	-1.0	-1.3	3.8	11.7
	독일 DAX40	26,128.36	-0.8	-1.0	5.2	6.7
아시아	일본 NIKKEI225	67,460.73	-2.5	0.7	5.2	34.0
	대만가권	45,308.68	-1.2	0.4	6.2	6.2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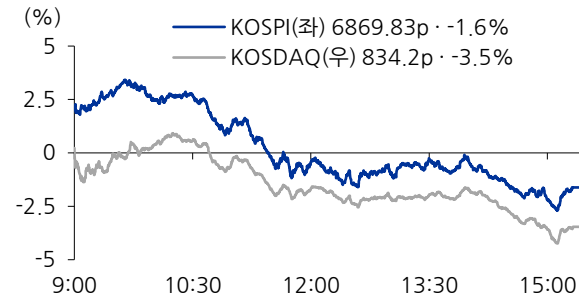
		증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년물	3.85	5.1	6.9	-0.1	89.4
	국고채 10년물	4.38	6.9	14.3	8.5	99.7
미국	미국채 2년물	4.18	0.4	-3.9	0.3	70.3
	미국채 10년물	4.71	-1.6	1.4	16.0	53.8
	미국채 30년물	5.28	-2.3	4.2	21.2	43.8
	NVDA CDS 5년물	82.08	1.7	8.7	23.0	40.3
	ORCL CDS 5년물	210.90	7.0	9.1	12.7	67.3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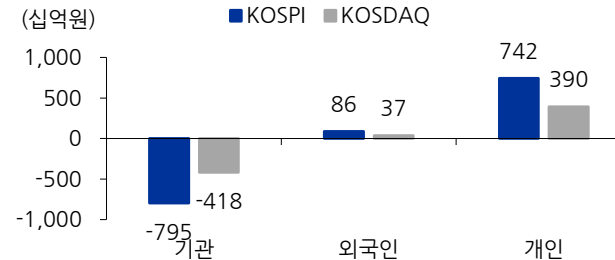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증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419.40	0.3	-0.3	-5.6	-1.4
	달러지수(pt)	99.94	0.0	0.0	-1.3	1.7
원자재	WTI 연결물(\$)	81.25	-2.4	5.1	4.0	41.5
	금 연결물(\$)	4,420.40	-1.1	2.8	10.4	1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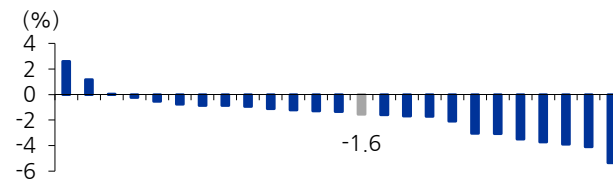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(26.8.18)



투자자별 수급 동향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



간밤 해외 증시

반도체·광통신주 이탈 & 에너지·방어 유입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 약세 & 필 반도체 급락**. 다우 -0.2%·S&P500 -0.7%·나스닥 -1.3%·필 반도체 -5.0%. **美채권금리 되돌림에도 레벨 부담 여전**(30년물 5.28% -2.3bp·10년물 4.71% -1.6bp) & **중동 불안에 유가 상승 지속**(WTI 근월물 +0.5%·\$85). 트럼프, 전쟁 종식 조기화 및 이란과의 회담 진행·예정 모두 부인. UAE는 이란의 자국 향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발표.
- **기술주 중심 하락 & 낙폭은 메모리·광통신에 집중**(SKHY -9.2%·SNDK -9.0%·MRVL -7.8%·MU -7.0%). 광통신 부품 FN(-19.5%), 어닝 비트에도 급락. 회계 4Q 매출 13.2억 달러(예상 12.7억)·조정 EPS \$4.10(예상 \$3.81)로 모두 상회했으나 **마진 약화 & FCF 마이너스 & 9월 분기 가이던스 부진으로 개별 주 하락**. **하드웨어 전반에 매도세 확산**(CRDO -13.0%·COHR -12.7%·LITE -9.9%).
- **이탈 자금은 에너지·소프트웨어·경기방어로 순환**. (에너지) XOM +2.5%·(소프트웨어) CRM +2.7% & (경기방어) 헬스케어 LLY +3.6%·필수소비 KO +2.1%

전일 국내 증시

금리가 끊어낸 5거래일 연속 상승

- **국내 양대 증시, 5거래일 만에 동반 하락 전환**. 코스피 -1.6%·코스닥 -3.5%. 개장 초반 코스피 +3%·코스닥 +1%까지 오르며 기존의 **코스피 강세&코스닥 강보합**을 이어갔으나, **채권 금리 급등에 반락**한 선강후락 장세.
- **(美) 30년물 17일 장중 5.35%(+6.7bp)로 07/6월(5.40%) 이후 최고치**. **(日) 10년물 2.93%(+1.3bp)로 96/9월 이후 최고**. **(韓) 국고채 30년물 4.78%(+10.8bp)·10년물 4.42%(+10.2bp)**.
- **중동발 지정학 불안도 투심에 부담**. 60일 휴전 만료에도 미·이란 협상 교착. 종로 첫날부터 호르무즈 선박 1척 피격. 美는 종전 MOU 연장 대신 경제 제재 발표 예고.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11명 사상(휴전 후 최대).
- **코스피는 중형주(-2.5%) 중심 하락 & 대형주·소형주 -1.5%(KRX 분류기준)**. **코스닥은 대형주·중형주 -4%·소형주 -2.3%로 성장주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상승에 더 노출**. **수급은 외인·개인 순매수 ↔ 기관 순매도로 양분**.

주: 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자료 출처: 코스콤,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하고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Eugene Daily Snapsho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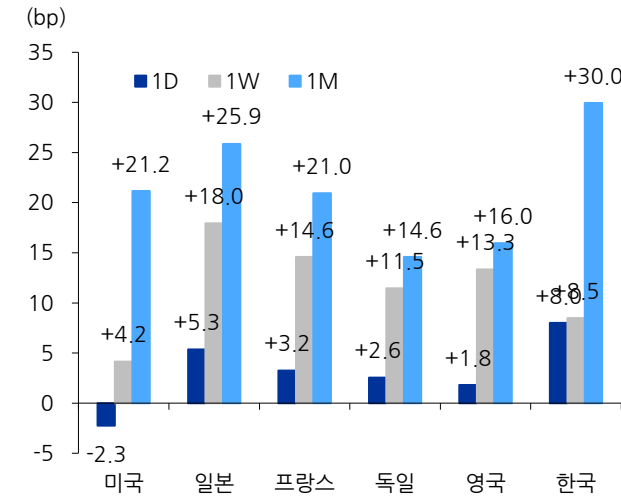
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AIDC 밸류체인 차익 실현 & 매크로 수혜업종으로 순환매

- **전월 말 대비 상대수익률 하위업종은 상승**→상위업종은 하락. 상승은 매크로(채권금리-중동 정세-남북관계)에 연동, 하락은 AI 밸류체인(AIDC 인프라-피지컬 AI)에 집중.
- **(에너지·운송)** 중동유가 상승 지속(\$85 등락)에 **에너지** S-Oil(+4.1%)·GS(+2.0%) 52주 신고가. **운송**은 해상운임 상승 기대에 강세(홍아해운 +12.9% 등).
- **(보험·호텔·레저)** 채권 금리 상승에 **보험** 현대해상(+9.6%)·미래에셋생명(+4.6%) 동반 강세. **호텔·레저**는 남북경협 테마가 부각되며 아난티(+13.9%) 급등.
- **(AIDC·피지컬 AI)** 급등 종목군에 **차익 실현** 집중. **IT 하드웨어**(삼성전기 -7.6%)·**자동차**(HL 만도 -6.8%)·**소프트웨어**(삼성에스디에스 -6.2%)·**IT 가전**(삼성 SDI -5.4%) 하락.
- **(반도체)** 삼성전자(-2.2%)·SK 하이닉스(+1.0%) 선방하며 **지수 낙폭 제한**. 앤솔릭 2분기 잠정 매출 115 억 달러(전년비 +14배)와 조정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AI 수요가 재확인되면서 메모리 투심 방어.
- **(코스닥)** 주도업종 내 차별화. **건강관리**(알테오젠 -5.1%)·**2 차전지**(에코프로비엠 -6.5%)·**로봇**(레인보우로보틱스 -6.2%) ↔ **반도체 소부장**(하나마이크론 +7.1%)

주요국 30년물 국채금리 기간별 변화폭



KOSPI 52주 신고가 · 신저가

52주 신고가 (12종목)		52주 신저가 (8종목)	
해인	▲14.3	케이카	▼15.1
현대해상	▲9.6	에이엔피	▼8.8
DN 오토모티브	▲6.6	CJ4우(전환)	▼7
KPX 홀딩스	▲5.6	아이에스동서	▼6
S-Oil	▲4.1	지누스	▼2.5
미창석유	▲4	맥쿼리인프라	▼2.2
GS	▲2	한국전력	▼2
GS 우	▲0.9	대원화성	▼1.9
S-Oil 우	▲0.7		
자이레스앤디	▲0.7		

오늘의 클로즈업

듀레이션이 갈라놓은 코스피 -1.6% & 코스닥 -3.5%

- **양대 증시 낙폭 차이를 만든 건 듀레이션**.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래 현금흐름 비중이 큰 자산일수록 현재가치 하락 폭 확대. 코스피 -1.6% vs 코스닥 -3.5%.
- 동일한 금리 충격에도 **코스닥 타격이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음**. 코스닥은 제약바이오·2차전지·기술특례 등 이익 실현 시점이 나중인 기업 비중이 높은 반면, 코스피는 당장 이익을 내는 반도체 & 금리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이 상위.
- **주요국 장기금리 다년래 최고 경신**. 미국 30년물 17일 장중 5.35%로 07/6월(5.40%) 이후 최고치. **美 재정적자·국채 발행 급증 & 빅테크 회사채 발행 확대**로 **장기 자금 유zieh 경쟁 심화**. 마이란 협상 교착에 따른 유가 상승세 고착도 장기 물가 불확실성 확대 요인. **글로벌 장기물로 상승 전이**. 일본 10년물('96년 이후)·프랑스('09년)·독일('11년)도 동반 최고. **국고채도 휴장 기간 상승분을 반영**, 30년물 4.76%(+8bp)·10년물 4.42%(+10.2bp) 마감.
- **금리 급등 국면에서는 질리티 전략이 유효**. 텀프리미엄 상승은 조달비용-리파이낸싱 부담 확대에 이어져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훼손. **고 ROE·저부채** 종목에 주목할 필요.

증시 자금 동향

(단위: 조원)

	8/14 일	1D	1W	1M	
고객예탁금	100.7	0.64	-3.50	-10.57	
신용잔고	거래소	23.9	-0.20	1.21	-3.04
	코스닥	6.5	0.15	0.41	-0.71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348.0	4.74	162.47	152.02
	채권형(전체)	213.4	0.09	12.39	9.61
MMF	262.7	-0.22	5.02	26.45	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

순위	종목명	증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SK 하이닉스	1,662,000	▲1	6,676
2	HMM	22,650	▲6.6	485
3	한미반도체	229,000	▼0	446
4	LS ELECTRIC	209,000	▲1.2	441
5	이수페타시스	102,900	▲7.6	378
6	삼양식품	1,334,000	▲5	309
7	효성중공업	2,984,000	▲1	278
8	현대해상	49,700	▲9.6	218
9	SK 텔레콤	99,800	▼0.7	206
10	SK 이노베이션	131,500	▲2.2	198